



#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Mary Anne Graf  
vice president, women's and children's services,  
Bon Secours Virginia Health System

선교와 사회정의의 전통에 충실한 가톨릭 의료기관과 병원들은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어린이들 -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의 노동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 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2010년 '환자 보호와 적정 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었을 무렵, 미국인 6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 전해보다 무려 9%나 증가한 놀라운 수치였다.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와 어린이의료보험제도(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는 자금 운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료에 대한 메디케이드의 지원은 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거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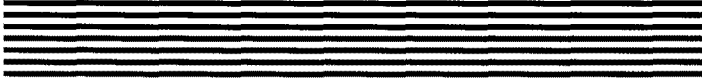
우리는 예기치 않게 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고 - 거의 25%에 이른다 - 종종 산전 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가임기 여성들의 놀라운 수치를 통해서 장차 어린이들의 건강

을 위협할 또 다른 암시를 발견한다. 임신은 어린이의 건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산전 관리의 소홀은 출생 시 체중과 두뇌 발달, 선천적 결손증과 조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어린이 치료에서 병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도 혼란스럽다. 다수의 가톨릭 병원들을 포함한 일부 병원들에서는 왕성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다른 대다수 병원들에서 소아과 병상 수가 턱없이 낮은 것은 - 동일한 대도시권에서 요구되는 어른 병상 수의 6%에 불과하다 - 그들이 처한 경제적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만성질환만 아니라면, 오늘의 어린이들이 입원할 일은 별로 없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보장하는 일상적인 의료이다. 소아과 병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면, 가톨릭 보건의료는 이를 타개할 새로운 방안 -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킬 혁신적인 프로그램 - 을 모색하고 그것으로써 자기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들(대개 이민들)을 위한 산전 관리 진료. 이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산모에게 더없이 중요한 산전 관리는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의료를 제공하는 일은  
가톨릭 보건의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 모든 가족(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가족들까지 포함)에 대한 출산과 육아교육, 적절한 문화적 지원.
- 병원 퇴원 시 안전을 보장하고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생의 첫 해를 지원하는 신생아 진료.
- 가난한 이들이나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 아기건강검진, 영양/비만 상태 평가 및 상담 등을 시행하는 이동지원진료.
- 메디케이드와 어린이의료보험제도(CHIP)의 등록 지원.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들 중 70% 이상이 이 프로그램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 소아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자택 중심의 호스피스센터.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린이의 임종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놀라운 삶의 체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봉스쿠르 버지니아의료원(Bon Secours Virginia Health System) 산하의 Noah's Children ([www.noahschildren.com](http://www.noahschildren.com))이 그 한 예이다.
- 조산 예방, 어린이와 어머니의 질병 검사, 무료 예방접종 등을 위해 병원 구내에서 임신과 어린이들에 관한



설명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 - 가톨릭 병원들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더욱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 은 평생에 걸쳐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자들의 모습을 가톨릭 병원과 의사들에게 제시해주는 데에도 한 몫을 할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의료를 제공하는 일은 가톨릭 보건의료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며,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출처 : Mary Anne Graf, "Our Future Starts Here", Health Progress (May-June, 2011), pp. 4-5.